앞선 의욕과는 달리 불행하게도 카르딜은 고작 기초 딱지를 뗀 마법사였다. 패기롭게 연회장으로 달려들었으나 경험 없고 실력 부족한 어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없었다. 인적이 있는 곳에서 살았다면 어지간해서는 볼 수 없는 마물을 보고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뿐. 얼마 전까지 정원 구석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던 밀라는 누구보다도 앞서 젊은 황녀를 지켜서고 있었다.

“밀라!”

실라카의 외침이 홀을 가로질러 카르딜의 귀에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걱정과 경악 어린 그 외침에도 밀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홀딱 음료에 젖어 처량하게 손수건과 바닥만 보던 모습은 어디로 던져두었는지 누군가를 뒤로 보호하며 채찍을 든 그녀의 모습은 제법 그럴싸한 기사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마수는 주변 타인들에게는 관심 하나 주지 않으며 요상하게도 황녀만을 집요하게 노렸다.

‘이상해. 정말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건가…?’

카르딜은 눈썰미가 좋은 편이었다. 또한 마수의 생태에 대해서는 제법 잘 알고 있었다. 아마 엘하임 제국의 사람들은 모를 법한 사실까지도. 자연상태에서 마수는 대부분 사냥하기 쉬운 인간을 노린다. 황녀처럼 실력자가 붙어서 지켜주는 사람을 끝까지 사냥하기 위해 진을 빼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의미였다.

“황녀님을 엄호해라!”

마리네스의 외침에 얼마 되지 않은 군 관계자와 아카데미 교수의 일부가 공격 마법을 시전했다. 밀라는 공격 마법을 사용하는 대신 마법으로 이루어진 무기만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마수를 내리쳤다. 빛처럼 반짝이는 밀라의 채찍이 마수의 몸뚱아리를 돌아가며 건드렸다. 계속되는 공격에 상처를 입은 마수는 이내 액체처럼 꿀렁거리더니 위협적으로 몸을 비틀며 제 몸에 붙은 보라색 구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포도처럼 매끄러운 보라빛 알이 여러 개가 연회장 바닥에서 통통 공처럼 굴렀다.

“지금이랍니다, 마수의 파편을 제거해주세요…! 공격 마법에 능하신 분들은 본체를 공격해주세요. 본체에는 두 개의 핵이 있을 거랍니다. 아마도 머리와 배…”

“뭐라고 지금 명령을ㅡ…!”

“어서요. 구체가 생기를 흡수해서 다시 본체와 합쳐지면 상대하기 곤란해져요.”

어리고 침착한 밀라의 지시에 아카데미 마법사는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아카데미 마법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영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카르딜이 보기에 밀라의 지시는 정확하고 옳았다. 다만 주변이 그녀의 지시를 받아들일 마음자세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뿐. 작게 한숨을 내쉰 카르딜은 밀라의 이름을 걱정스레 외친 실리카를 찾아가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밀라에게 홀로 방어 마법을 걸어주던 그가 깜짝 놀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저씨 저랑 이거 없앨까요? 저기 아주머니가 그러라잖아요.”

“어?”

“어서요, 저거 움직이고 있어요.”

구체는 이내 생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며 어디 숨겨두었을지 모르는 촉수를 길게 뻗어 연회장의 사람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실리카는 카르딜을 뒤로 보호하며 주변에 큰 규모로 방어 마법을 시전했다. 아이의 말과 동시에 마수의 독에 코피를 쏟고 있던 황녀가 짧게 대답했다.

“이 분의 말을 따르도록 하게. 사감을 넣을 때인가.”

“하지만…”

“어서.”

황녀가 크게 기침을 하며 손을 젓자 마법사들은 하나 둘 마리네스와 아카데미의 노익장을 필두로 하여 밀라가 지시한대로 마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마수의 핵은 보통 하나였으나 이번만큼은 밀라의 말대로 두 군데의 핵을 지니고 있었다. 다행히도 대부분 마법사들만 모인 무도회의 한가운데였기에 사람들은 하나 둘 제 몸을 지킬 정도로는 대처할 수 있었다. 흉포한 본체와 달리 마수가 바닥에 뿌려 놓은 파편들은 군이나 마수 전문이 아니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했다. 물론 모든 마법사가 마수 퇴치에 열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아직 두려움이 많고 실력이 부족한 어린 마법사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 마법사이나 마법 실력이 썩 좋지 않은 이들과 남의 보호에만 기대려는 사람들 등… 상당히 많은 수가 비교적 안전하고 보호받는 벽면으로 피해있거나 이미 누구보다 빨리 연회장을 빠져나가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카르딜의 ‘아버지’ 또한 먼저 비겁하게 몸을 빼었는지 눈을 돌려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아이는 다시 한 번 한숨 쉬었다. 이번에는 제법 큰 한숨이었다.

“걱정이 되어서 그래?”

땅이 꺼져라 내려앉는 그의 한숨 소리를 들었는지 실리카가 마법을 시전하다 말고 뒤를 흘긋 돌아보았다. 사람 좋아 보이는 목소리와 얼굴이 처음 보는 카르딜을 위한 걱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걱정 마라. 내가 이래봐도 방어 마법 하나는 자신 있거든. 지켜줄테니까 마수의 파편들을 잘 좀 부탁해.”

“아니…”

“우리가 잘 해줘야지. 안 그래?”

뒤를 돌아보던 실리카의 시선은 어느새 마수의 본체가 있는 곳으로 향해 있었다. 정확히는 마수의 본체가 공격하는 황녀와 그녀를 지키며 본체를 처리하는 마법사의 무리들을 향해있었다. 아마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황녀를 지키는 밀라 레첸스를 바라보는 시선일 터였다. 카르딜은 괜히 요상한 기분을 느끼며 저를 향해 적의를 드러내는 마수 파편의 촉수를 불태웠다. 아니라고 부정하려 했던 퉁명스러운 대답은 적당히 안으로 삼킨 후였다.

\* \* \*

집으로 돌아가는 길

\* \* \*

해결됨 정신없음 황녀와 성녀 이야기